

광주시, 세계수영대회 최대 현안 선수촌 해결

市-송정주공재건축조합-중흥건설 건립 협약 체결

내년 착공 2019년 완공 ... 사용료 19억 지급키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선수촌 문제가 해결되면서 대회 준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4일 시청에서 송정주공재건축조합, 시공사인 중흥건설(주)과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조합, 시공사는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기간 내에 명품 선수촌 건립과 차질없는 사용에 합의했다. 또한, 협약에 따라 시는 선수촌 건립과 관련,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조직위원회'와 '조합' 사이에 이견,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중재하며 이 사업의 진행을 총괄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는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사용 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이 적지 않았던 사용료 부분을 명확하게 해 분쟁 소지를 아예 없앴다. 광주시는 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대출금리, 사용기간, 실제 사용세 등 사용료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문화했다. 시가 송정선수촌 사용으로 지불하게 될 사용료 규모는 19억4000만원이다.

반면, 지난해 7월 끝난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는 광주시가 34억원을 주장한 반면 조합측은 467억원을 요구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송정주공 재건축조합 측은 연말까지 이주 완료와 건물 철거작업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한 뒤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2019년 3월 완공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완공 뒤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거쳐 4월부터 9월까지 6

개월간 선수촌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선수촌 아파트는 지상 15~25층, 25개동(棟) 1660가구로 지어진다. 선수 및 임원 4500명과 미디어 2000여명 등 6500여명이 동시 사용이 가능하다.

세계수영연맹과 심판진 등은 시내 호텔

과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선수와 심판진 등을 수용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특히 전문 수영인들이 참석해 경연하는 월드컵피인십과 수영 동호인이 참가하는 마스터스선수권 대회의 시기를 분리해 치르기로 해 사실상 선수촌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수영선수권과 마스터스 대회는 2019년 7~8월께 열릴 예정이며 전 세계에서 선수와 임원 등 1만2000여

명이 참가한다. 종목은 경영, 다이빙, 수구,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실의 장거리 레이스인 오픈워터 등 크게 다섯 종목이며, 월드컵피인십은 16일간, 마스터스선수권대회는 12일간 열린다.

이돈국 광주시 수영대회지원단장은 "현안인 선수촌 숙박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대회 성공개최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4일 오전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윤장현(가운데) 광주시장, 조병욱(왼쪽) 송정주공재건축조합장,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등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송정주공 선수촌 건립 협약'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양시 공무원들 '혈세로 취미생활?'

2억원 어치 등산복 상품권 구매 직원들에 지급

전남도 감사서 적발

광양시가 2억여 원의 아웃도어 의류 상품권을 혈세로 구매한 뒤 이를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가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전남도는 아웃도어 의류 구입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광양시에 요구한 상태다.

4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1억8800만원 상당의 아웃도어 의류 상품권을 구입해 공무원들 한 명당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는 광양시가 "업무 성격상 재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피복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전남도 측은 업무 성격상 아웃도어

의류를 입어야 하는 공무원에게는 상품권이 아닌 의류를 지급해야 하는데, 광양시는 이 규정을 어겼고 상품권을 받은 대부분의 공무원은 업무 성격상 아웃도어 의류가 불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들이 등산 등 취미생활을 위해서라면 자기 돈으로 구입해야 할 아웃도어를 결국 주민의 혈세로 구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남도는 아웃도어 의류 구입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광양시에 요구했다.

전남도는 또한 광양시가 2014년도 국비 확보(예산 편성 기준)에 기여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을 부당하게 준 사실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 조치했다.

전남도는 또한 광양시가 2014년도 국비 확보(예산 편성 기준)에 기여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을 부당하게 준 사실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 조치했다.

/이종형기자golee@kwangju.co.kr

더민주 광주시당위원장 경선

이형석-최영호 양자대결 구도

지역위원장 對 자치단체장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이 지역위원장 vs 자치단체장의 양자 구도로 형성됐다.

더민주 광주시당은 4일 시당위원장 후보자 공모 결과 이형석 광주 북구를 지역위원장과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등 2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애초 출마가 예상됐던 민형배 광산구청장과 현 시장위원장인 박해자 전 의원(서갑)과 최근 대통령리더십원장(동남갑) 등도 출마를 접었다.

광주 지역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수차례 논의 끝에 이형석 북구를 지역위원장을 시당위원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다"면서 "애초 출마를 생각했던 지역위원장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후보나임을 방지하기 위한 아름다운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롭게 선출될 시당위원장을 적극 돕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민의 애정과 지지를 회복해 내년에 정권창출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구청장도 후보등록에 앞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당의 이름을 걸고 선출된 공직자의 자격으로 정당혁신의 길에 뛰어들다"며 "광주에서 먼저 더



이형석 위원장 최영호 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이 혁신해야 중앙당의 변화도 이끌 수 있을 것이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정치신인을 공천한 중앙당의 오만으로 뒷받침 광주에서조차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당의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 소속된 정치인들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 선출은 권리당원 ARS 투표와 전국대의원 현장투표 결과를 각 50%씩 반영해 이뤄진다.

ARS 투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인기관에 의뢰해 광주지역 권리당원(전국대의원 제외) 1만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직접 투표는 오는 13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광주시당 정기 대의원대회 때 시당 소속 전국대의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인사 원칙 안 통하는 광주시의회 사무처

업무량 적고 근무평정 유리

전출않고 '꽃보직' 노린 전임 줄이어

시의원들 '자기사람 챙기기' 원인

광주시의 하위직 정기 전보인사를 앞두고 시청 안팎이 이른바 '꽃보직'으로 불리는 시의회 사무처를 둘러싼 '파워'게임으로 시끄럽다. 의회 사무처는 공무원들 사이에 '한직(俸職)'으로 통하지만, 인사 때만 되면 회의를 빠져 나가려는 전출 직원은 없고 전임 직원만이 줄을 잇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특히 인사 이후 20년을 이통 한번 없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 징계를 받아도 전보되지 않는 직원, 승진해도 타부서로 전출되지 않는 직원 등 정상적인 공무원의 인사발령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다.

또한, 승진해서 나간 뒤에도 1년만 지나면 되돌아오려는 경우도 상당수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략 1년에 한번 정도 인사이동을 하고, 주요 현안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시급할 경우 6개월만에도 전보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회 사무처는 사실상 시청과 별도의 조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인사나 행정의 기본원칙이 거의 작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인사철만 되면 시의원들 간 '뺨 전쟁'도 상당하다. 시의원들만 잘 '관리'하면 정기인사에서 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 직원들은 의회 사무처 일부 직원 이 10~20년이 지나도 집행부로 옮기지 않고 사무처에서만 근무하는 것과 관련, 그 배경에 의구심과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닌데다, 어쩌다 집행부로 오더라도 1~2년 만에 의회 사무처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의회사무처 근무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인 집행부 직원들에게는 '의회사무처 불박이'로 사는 일부 직원들의 행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들이 길게는 20년을 한 곳에서 버티는 이유는 의회사무처가 업무량이 적고 편한데다 고생 대비 근무평점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형적인 의회사무처 인적 구성 탓에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의장은 전보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집행부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공통된 견해다.

집행부의 한 간부는 "어떻게든 의회 사무처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직원들이 있는데,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집행부와 의회사무처의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일반 공무원들은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해 2~3년 단위의 타부서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승진한 직원은 5년 이내에 의회사무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대한보청기 광고심의회: 심의번호 2013-GN1-10-0067
www.maxo.co.kr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 '프로' **맥소 '스텝'** **맥소 '크리스프'** **맥소 '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누구나 잘 들을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관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점 - 직영특가·맞춤렌탈·장기신용할부·국가보조금 대상자 특별지원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부산중구본점 051)632-62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책자 무료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광주·전남 062)430-8900
순천·여수 061)741-4880
전북·전주 063)251-4999

☎☎☎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1599-9040